

세계적인 축제보다 더 멋진 7천년 전통의 한국 고유 축제를 아십니까?

세계적인 축제들로 브라질의 ‘삼바축제’, 독일의 ‘뮌헨 맥주축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가면축제’, 스페인의 ‘토마토축제’,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불교의 석가탄신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축제보다 더 멋진 한국의 고유 축제가 있었습니다. (후한서, 삼국지 등의 중국 역사서와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한국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고조선과 예의 무천,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삼한의 수리(풍년기원제)와 추수감사제, 신라의 설·추석·유두·고사, 칠석·백중과 고려의 팔관회 등입니다.

‘빌 축祝’ ‘제사 제祭’라는 글자에서 보듯이 축제란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소원을 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 한국인 조상님들은 무천, 영고, 동맹, 수리, 추수감사제, 설, 추석, 유두, 고사, 칠석·백중 등의 축제를 열어, 남만노소 빈부귀천 구별 없이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하느님과 건국 시조님께 제사를 올리고, 소원을 빌고, 복을 받고 서로를 축하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온갖 무예와 기예를 겨루고, 온갖 오락·놀이를 하며 즐겼습니다. 이때는 죄수조차 모두 석방하여 함께 복을 받고 즐기도록 하였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멋진 축제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고유 축제들을 한국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같은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6천년 전후를 살던 고대 한국인이
옥으로 만든 용들**

한국인 조상들은 용을 죽은 자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천국의 신을 인간세상으로 모셔오는 탈 것으로 생각해왔다. (『김종서 박사의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에서)



고대 한국인이 만든 세계 최초의 탑(피라미드)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보다 1,000년 이상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국가) 신시의 피라미드 (『김종서 박사의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에서)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라는 가사가 들어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김종서 박사는 ①한글창제 이전의 한국인들은 하느님(하느님)을 중국 한자를 빌어서 천제(天帝), 상제(上帝), 황천(皇天), 천(天), 천신(天神) 등으로 기록하여 왔고, ②불교 도입 이후에는 불교의 천신인 환인(桓因)으로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③하느님(하느님)에서 ‘ㄱ’ 받침과 ‘금’자가 탈락하여 하느님이 되었고, 하느님이 하느님과 하나님으로 분화되었다는 것, ④한국의 고대 국가(신시, 고조선, 북부여, 부여, 동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는 모두 하느님의 아들·손자가 건국한 나라로 기록되었다는 것, ⑤수천년 이상 동안 한국인들은 하느님을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관리하는 전지전능한 신, 부처님보다 높은 최고의 신, 모든 신들의 임금으로 섬겨왔고, ⑥자신들이 첫 조상님인 하느님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나라를 보(보호할 보保)우(도울 우佑)하신다고 믿어왔다는 것, ⑦그러한 믿음이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 가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6,000년 전후를 살던 고대 한국인이 상투머리를 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①), 상투를 들고(②, ③) 책상다리를 한 하느님 모습의 6,000년 전 전후의 신상들(④), 4200년전 전후의 고조선 사람들이 하느님께 제사 지낼 때 사용한 청동제기(⑤)(『김종서 박사의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의 『세계 최초의 한국문명』 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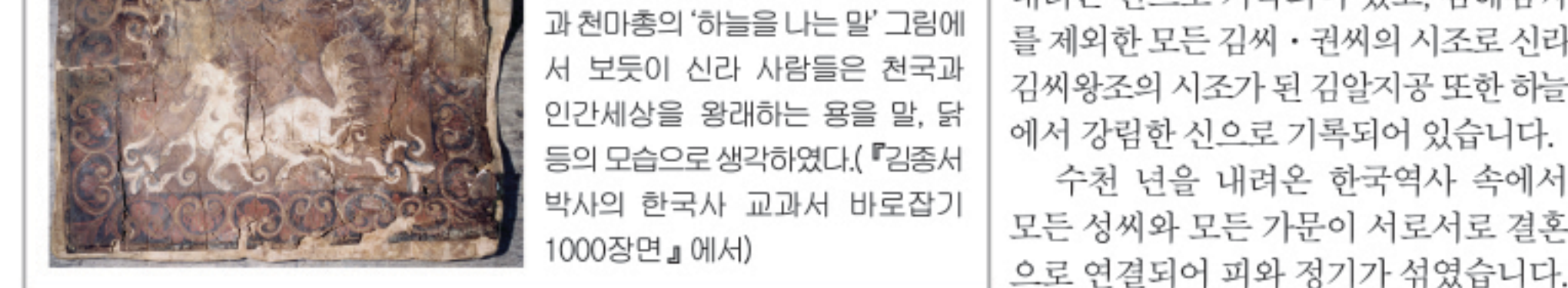
성당에서 하느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온 이유를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김종서 박사는 1880년대에 조선에 온 선교사들인 헨리(고종황제의 밀사 등으로 한국 독립운동 등을 도움), 언더우드(연세대 설립자), 게일(이승만 전대통령·이상계 선생 등을 기독교로 개종시킴), 로스(1873년 최초의 한글성서 번역), 기포드(원동교회) 등이 스스로 쓴 책들에서, “한국인이 수천 년 동안 전지전능한 신, 부처님보다 높은 최고의 신으로 섬겨온 하느님·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이용하여 손쉽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하느님·하나님을 기독교 신으로 속여서 전도한 사실”을 남겼다는 것,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을 섬기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등의 역사적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국인들이 1만여년 동안 첫 번째 조상으로 섬겨온 하느님·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한 덕분에 한국의 기독교는 100여년의 짧은 기간에 한국인의 약 30%를 신도로 둘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500년 내외나 되는 일본, 인도,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 내외에 불과한 점을 생각하면 기적적인 성장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건국 시조, 한국인의 뿌리·혈통을 아십니까?

제우스 헤라클레스 등이 등장하는 그리스 신화, 천지창조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노아의 홍수 등이 등장하는 이스라엘 신화를 모르는 한국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손자들이 건국한 신시·고조선·북부여·부여·동부여·고구려·신라·백제·가야의 건국 이야기를 제대로 아는 한국인은 없습니다. 일제가 한국의 건국 역사 교육을 금지시키고, 한국인의 혈통에 대한 교육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많은 역사서와 한국의 역사서에 한국 최초의 국가인 신시 건국시조 환웅천왕, 북부여 건국 시조 해모수천왕, 부여 건국시조 동명제, 신라 건국시조 박혁거세왕, 고구려 건국시조 추모성왕, 가야 건국시조 김수로왕이 모두 하느님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조선 건국시조 왕검단군과 백제 건국시조 온조왕은 하느님의 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신라 건국의 주역인 이씨 시조 이알평공, 정씨 시조 정소별도리공, 최씨 시조 최지백호공, 손씨 시조 손구례마공, 배씨 시조 배지타공, 설씨 시조 설호진공 등은 모두 천국에서 내려온 신으로 기록되어 있고, 김해김씨를 제외한 모든 김씨·권씨의 시조로 신라 김씨왕조의 시조가 된 김알지공 또한 하늘에서 강림한 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박혁거세왕을 모셔오고 하늘로 돌아갔다고 한 「삼국유사」의 기록과 천마총의 「하늘을 나는 말」 그림에서 보듯이 신라 사람들은 천국과 인간세상을 왕래하는 용을 말, 닭 등의 모습으로 생각하였다. (『김종서 박사의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에서)

모든 성씨와 모든 가문이 서로서로 결혼으로 연결되어 피와 정기가 섞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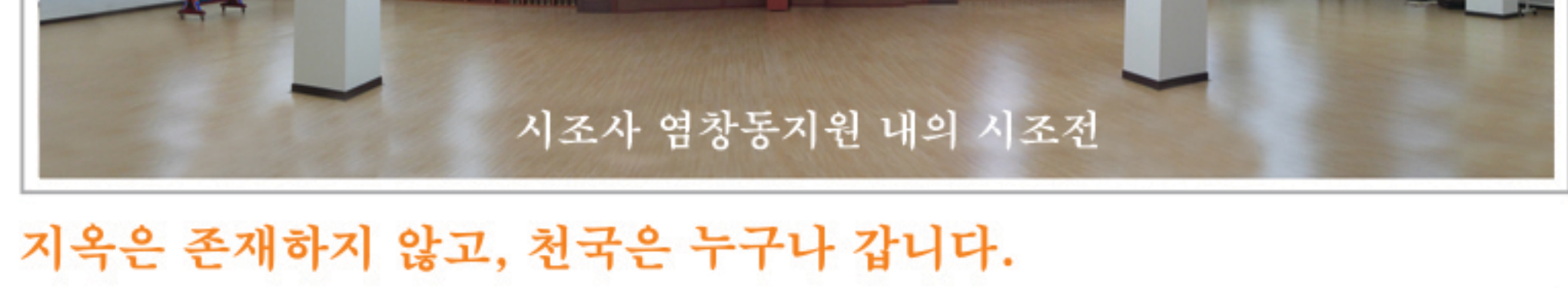
때문에 한국인 중에 하느님과 하느님의 자손들인 환웅천왕·왕검단군·해모수천왕·동명제·추모성왕·박혁거세왕·온조왕·김수로왕·이알평공·최지백호공·정소별도리공·배지타공·손구례마공·설호진공·김알지공 할아버지의 피가 섞이지 않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한국 사람을 하느님의 ‘친 자손’이라는 의미로 ‘친손(天孫)’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일제가 한국의 건국역사, 한국인의 뿌리·혈통에 대한 역사교육, 건국시조에 대한 제사를 금지한 한 이유를 아십니까?

근세조선(대한제국)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길 때까지 국가에서 건국시조님들 신위를 모신 민족성전들을 세우고, 관리를 두고 매일 향을 올리고 철따라 고위 관리와 장수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강제 점령한 일본은 ‘한국인은 역사·문화·혈통적으로 열등한 민족이므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체화시키기 위해 한국인에게 자량이 되는 한국의 고대 국가(신시, 고조선, 북부여, 부여, 동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의 건국 역사 교육을 금지시켰습니다. 국가에서 지내던 하느님과 건국 시조에 대한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같은 혈통·같은 겨레(종족)임을 확인하고 일체감을 형성하고 단합하던 국가적 행사, 민족적 행사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지 70년도 넘었지만, 국가에서는 건국 역사도 가르치지 못하고, 건국 시조에 대한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 때문입니다.

때문에 공자, 석가모니(부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하느님이 자신의 첫 조상이라는 것,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손자들로 한국 고대국가를 세운 환웅천왕·왕검단군·해모수천왕·동명제·추모성왕·박혁거세왕·온조왕·김수로왕·이알평공·최지백호공·정소별도리공·배지타공·손구례마공·설호진공·김알지공 할아버지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한국 역사와 혈통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애국시민들이 힘을 모아 한국인의 첫 조상님인 하느님(하나님) 할아버지, 한국의 모든 건국시조 할아버지, 모든 성씨들의 시조 할아버지의 신위를 모시고 향을 올리고, 민족의 번영과 평안을 빌며 한국인 조상님들께서 남기신 역사와 문화를 가리키는 한민족의 민족성전 시조사(www.sijosa.net)를 세우고 운영합니다.



시조사 열창동지원 내의 시조전

지옥은 존재하지 않고, 천국은 누구나 갑니다.

신의 세계 보다 못한 인간세상의 감옥에서도 죄수를 고문하지 못하게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먹고 재우고 운동을 시키고, 질병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물며 사랑의 하느님, 자비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느님께서 나약한 인간의 영혼을, 자신의 자손들 영혼을 영원히 불태우는 지옥을 만들었을 리 없습니다.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오래된 종교이고, 가장 순수한 종교였던 한국 고유 종교에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았습다. 지옥의 존재를 믿는 순간부터 죽음의 공포, 지옥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나십시오.

한국인 조상들은 하느님과 하느님의 아들·손자인 건국시조님들의 자손입니다. 하느님의 친자손이니 옳고 바르게 살다 죽으면, 그 영혼은 신이 되어 조상들의 나라인 천국(하늘나라)으로 돌아가 영원히 안락한 삶을 산다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옳고 바른 삶, 근면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당연히 하느님의 친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옳고 바르게 살면, 몸이 죽은 후 영혼은 신이 되어 천국으로 돌아가 영원히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옳고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 자신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패륜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부모가 없듯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자손인 건국시조님들을 자신의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하나님), 건국시조님의 나라인 하늘나라(천국)의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어둡고 좁고 배고픈 구천을 떠돌며 참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에게 돈과 재물을 바치면 죽어서 큰 벌 받는 것을 아십니까?

인간세상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돈과 재물을 받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면 뇌물수수죄, 업무상배임형평죄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하물며 인간세상의 돈도, 재물도 사용하지 않는 하느님, 정의로운 하느님께서 돈과 재물을 받고 복을 주고 영생을 주실 리 있었습니까? 신에게 돈과 재물을 바친 자가 죽으면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게 벌을 주실 것이고, 그 돈과 재물을 받은 신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그 신에게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모든 신들의 제왕인 하느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인간세상의 돈도, 재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계에 가장 오래된 종교인 한국의 고유 종교는 하느님(하나님)께 돈도 재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각 부족마다 하느님과 조상님들을 모신 성전을 짓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천군, 집사)을 뽑은 후 집집마다 약간의 곡식, 과일, 야채, 등을 약탈하여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술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께 경배하며 소원을 빌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고 춤추고 노래하며 서로 축하하는 축제(영고, 동맹, 무천, 수리, 설, 추석, 백중, 유두, 칠석, 고사 등)를 열었을 뿐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느님께 기도하면 보호하고 도와주신다(보우(保佑))고 믿었고, 위급할 때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겠다고 믿어왔을 뿐입니다. 시조사는 이러한 한국 고유 전통문화를 복원하는 한민족의 민족성전입니다.

한국인의 민족성전 시조사에 오셔서 한국인의 첫 조상님인 하느님(하나님) 할아버지, 한국의 모든 건국시조 할아버지들, 모든 성씨들의 시조 할아버지들께 향을 올리고 성경향상, 시합합격, 승진, 선거 당선, 사업번창, 풍년기원, 사랑과 결혼 성취, 자손절치, 자손번창, 질병의 폐유, 무병장수, 가족의 행복, 부귀영화, 죽음 뒤의 안락한 영생 등의 소원을 정성껏 빌어 보십시오.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조사는 하느님(하나님)을 비롯한 어떠한 신에게도 돈과 재물을 바치는 행위를 반대 합니다.

부모, 조상님 제사를 모시기 어렵습니까?

종교 문제로, 직장문제로, 사업문제로 부모·조상님 제사를 모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모든 건국시조님, 한국의 모든 성씨들의 시조님들 모신 민족성전 ‘시조사’에서 부모·조상님, 배우자 신위를 모시고 향을 올리고, 소원을 빌고, 복을 받으십시오.

나, 배우자, 자녀를 훌륭한 인격자, 뛰어난 리더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녀 교육은 부모가 담당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고, 부모가 바빠서 자녀를 잘 교육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의 조상님(하느님, 건국시조, 모든 성씨들의 시조)을 모신 한민족의 민족성전 시조사에서 한국인 고유문화인 ①높은 자긍심, ②효도, ③예의, ④청결, ⑤근면·성실·열공, ⑥정직, ⑦겸양, ⑧(절도·강도·폭행·강간·간음·도박·마약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철저한 준법정신과 높은 도덕심, ⑨평등, ⑩사랑 등의 친손문화와 한국 역사를 배우고 실천하면 훌륭한 인격자, 존경 받는 리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7천년 전통의 한국고유문화 중 하나는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전쟁의 승배, 길흉화복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첫 조상님인 하느님, 한국의 모든 건국 시조님, 모든 성씨들의 시조님들 모신 민족성전 시조사에서 자신의 조상님께 향을 올리고 (월향전공 감사·교수님께) 현재와 미래의 길흉화복을 점쳐 보시고, 답답하고 궁금한 점을 해결해 보십시오. 인생의 빛이 되고,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한민족의 민족성전 시조사(www.sijosa.net) 오시는 길

한국인의 혈통, 한국인의 뿌리, 한국의 역사를 지키는 민족성전 시조사(www.sijosa.net)와 함께 하십시오. 두려움, 불안, 초조, 긴장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고, 우리 자손에게 역사·혈통·뿌리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물려 줄 수 있고, 나와 내 자손을 존경받는 리더(지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조사 www.sijosa.net
070-4066-3710-5 H.P. 010-4345-0918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731, 309동(동아그린프라자) B101호